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10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9.16~2026.09.2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유치(공공기관), 추석(민생), 청년(농업), 공항(갈등), 재정(조정)
경제·관광	추석(연휴), 관광객(외국인), 소비(소상공인), 감귤(유통), 항공(마일리지)
지역·사회	추석(명절), 범죄(사기), 수사(허위), 장애인(대회), 학생(건강)

※ 분석 기간 : 26.09.16.~26.09.2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유치(공공기관)	- G20 정상회의 유치 범국민추진위 출범 - 2차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촉구안 발표 - G20·공공기관 유치 전략 도의회 주문
	추석(민생)	- 위 지사, 추석 연휴 안전 대응망 총가동 주문 - 제주시 추석 종합상황실 7개 분야 비상근무 - 지사·도의회, 추석 앞 전통시장 민생 점검
	청년(농업)	-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242억 조성 본격화 - 청년이 직접 기획한 2026 제주청년의 날 -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립 검토
	공항(갈등)	- 위 지사 "제2공항 내년 상반기 종지부...결론 수용"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지속 - 인천공항 제2 국제관문 제안·드론감시단 대상
	재정(조정)	- 제주교육 재정 빨간불...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 제주도 재정 건전성 경고...실질 채무비율 25.73% - 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보조금 개선 합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추석(연휴)	- 추석 연휴 방문객 22만9000명...4.4% 감소 전망 - 단거리 특수 속 항공권 품귀·운임 상승 - 제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추석 자금난
	관광객(외국인)	- 누적 관광객 1000만명 돌파...작년보다 8일 빨라 - 직항 없는 동남아 관광객 50% 이상 급증 - 10월 가을 성수기 시장별 관광 마케팅 집중
	소비(소상공인)	- 추석 앞 소상공인 500곳에 150억 특별보증 - 호우·강풍 때 관광소비 최대 17% 감소 - 고용 늘어도 소비 회복 제자리...부동산 심리 최저
	감귤(유통)	- 노지감귤 5년 최대 44만3300t...유통계획 확정 - 추석 앞 상품외 감귤 유통 적발...감시 강화 - 감귤·마늘 산지유통 스마트APC 전환·AI 관측
	항공(마일리지)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확정 - 제주항공, 창립 21년 만에 첫 단독 사육 - 관광업계 항공좌석난 해소 촉구...내국인 감소 비상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추석(명절)	-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추석 앞 취약계층 향한 나눔·온정 이어져 - 추석 당일 흐림...대형마트는 서귀포만 휴무
	범죄(사기)	- 골드바·노쇼 피싱 조직 31명 검거...피해 108억 - 제주 범죄발생비 전국 최고...관광객 반영 땀 급감 - 아내 살해 전직 경찰관 기소·상습 절도범 구속
	수사(허위)	- 실종 허위종결 사태, 전 형사과장 등 8명 수사 - 변호사 알선 경위 입건·도의원 선거법 압수수색 - 남원읍 배수로 덮개 32개 도난...해안 마약 23번째
	장애인(대회)	- 제주 첫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종합 9위 역대 최고 - 장애인체전 안전·편의시설 부실 준비 도마 - 제주대병원 장애인 고용 4년째 법정기준 미달
	학생(건강)	- 난치병 학생 215명에 교육·치료비 3억원 지원 - 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배상 촉구 - 멸종위기종 방사·유학생 한복 체험 등 학생 활동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9월 16일~9월 2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29건임
 - 정치·행정 분야 287건, 경제·관광 205건, 지역·사회 43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유치(공공기관), 추석(민생), 청년(농업), 공항(갈등), 재정(조정)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유치(공공기관)	- G20 정상회의 유치 범국민추진위 출범 · 제주도는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으며, 8월 25일 유치 전담반 구성과 9월 7일 공식 홍보 개시에 이은 후속 단계임. · 제주도는 회의·숙박시설 집적과 양호한 경호 여건을 들어 G20 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으나, 인천·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국제회의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	----------	--

	유치(공공기관)	제주의 긴장감이 높아짐. - 2차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촉구안 발표 ·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하고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희망 기관을 정부 이전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함. · 운동본부는 도의회와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유관단체, 도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이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라는 구호를 외친 가운데 기관별 유치 논리를 정교화해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시작으로 제안서를 순차 전달함. - G20·공공기관 유치 전략 도의회 주문 · 1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박호형 의원은 에이펙과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점을 들어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G20 유치 전략을 주문했고,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숙박·국제회의 인프라와 정상회의 유치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답변함. · 같은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마사회 등 중점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한 유치 전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제주도는 정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6개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임.
정치·행정	추석(민생)	- 위 지사, 추석 연휴 안전 대응망 총가동 주문 ·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1일 도청 탐라홀 주간정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귀성객·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도로·응급실 비상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으며, 43만명 이동에 대비해 281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병·의원 234곳이 연휴 진료에 나섬. · 제주도는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진료체계, 문화·행사 안내, 도민 생활정보 등 네 분야로 구성된 추석 명절 특별 누리집을 2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며, 위 지사는 22일 추석 메시지에서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힘. - 제주시 추석 종합상황실 7개 분야 비상근무 · 제주시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관광상황반, 읍면동 자체 기동반 등 7개 분야 상황반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함. · 서귀포시는 24시간 응급의료기관과 올레길 정보 등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은 추석 연휴 시민 생활정보를 누리집으로 제공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식중독에 대비해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고 검사·감시체계를 강화함. - 지사·도의회, 추석 앞 전통시장 민생 점검 · 위성곤 지사는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제수 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장바구니 물가와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살폈고, 박근형

정치·행정	추석 (민생)	상인회장 등 임원들과 장옥 정비와 주차 환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운영 현안을 논의함. ·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과 비상근무기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국민 의힘 제주도당도 22일 같은 시장에서 추석 민생탐방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함.
	청년 (농업)	-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242억 조성 본격화 · 제주도는 첫 청년농업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2028년 12월까지 총 242억원을 투입해 딸기·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온실 3동·4ha를 조성할 계획임. · 올해 사업부지 현장 정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감, 농업기술원은 2018년 구축 이후 8년 만에 농업인 교육 업무 시스템을 농업 디지털플랫폼 제주DA와 연계해 신청부터 출석, 이력 관리까지 전면 개편함. - 청년이 직접 기획한 2026 제주청년의 날 · 제주도는 19일 제주시 북수구광장에서 2026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을 열었으며, 제주청년센터와 청년참여기구,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 서귀포시청년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청년의 날 공동준비기획단이 행사 기획과 운영을 주도함. · 청년의 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열리며, 이번 기념식에서는 청년대상 4개 부문과 로고 공모전 시상, 오픈마이크·버스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됨. -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립 검토 · 제주도는 2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관계기관·전문가·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주체로 나뉜 유통체계의 연계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반기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전담기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함. · 토론회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공약을 대체할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가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작목별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가격 약세로 양배추 재배면적이 5% 감소하고 브로콜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공항 (갈등)	- 위 지사 "제2공항 내년 상반기 종지부...결론 수용" ·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안에 11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히고, 찬반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면 수용하겠다고 주민투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위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구

정치·행정	공항 (갈등)	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이해당사자를 더 만나 설득하며 정상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론 도출 후에는 재갈등 차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지속 ·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위원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밝힌 갈등 해소 3대 방침 중 갈등조정협의회의 당사자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함. · 위성곤 지사는 16일 간담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객관적·독립 기구로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예규를 준용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고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적 근거 논란 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짐. - 인천공항 제2 국제관문 제안·드론감시단 대상 ·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와 인천을 잇는 항공노선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제주의 제2 국제관문으로 활용하자며 소형항공기 매일 운항과 환승전용 내항기 도입을 제안함. · 제주도가 제주느영나영시니어클럽과 함께 퇴직 경찰관·소방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추진 중인 공항 안전 불법 드론 감시단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받음.
	재정 (조정)	- 제주교육 재정 빨간불...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 21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의 2025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이고 남은 기금 잔액이 19억원인 반면 내년 이후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사업 조정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옴. · 강정범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속 학교 통합 운영 등 대책을 촉구했고 최은희 부교육감은 통폐합을 대원칙으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박왕철 의원은 학교 신·증설과 입학준비금 지급 재검토를 요구함. - 제주도 재정 건전성 경고...실질 채무비율 25.73%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재정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곳곳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으며, 지난해 결산에서 재정집행 실적은 개선됐지만 채무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제주도의 관리 채무비율은 16.23%이지만 실질 채무비율은 25.73%에 달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됐고, 도와 의회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7년도 예산을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하기로 함. - 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보조금 개선 합의 · 제주도와 도의회는 21일 탐라홀에서 민선 9기 도정과 제13대 도의회 출범

정치·행정	재정 (조정)	이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 제주4·3 해결, 공공기관 유치 공조 등 7개 의제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함. · 양 기관은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된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효율성·책임성 강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형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으며, 공동위원장인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의장이 합의문에 서명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석(연휴), 관광객(외국인), 소비(소상공인), 감귤(유통), 항공(마일리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경제·관광	추석 (연휴)	- 추석 연휴 방문객 22만9000명...4.4% 감소 전망 ·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항공과 선박으로 22만9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23만 9596명보다 4.4% 감소한 수치로 연휴가 짧아진 데다 항공 공급 좌석이 줄어 든 영향임. · 항공 공급 감소로 내국인은 2만명 줄지만 중국 연휴가 겹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22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장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을 만나려는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짐.
-------	------------	--

경제·관광	추석 (연휴)	- 단거리 특수 속 항공권 품귀·운임 상승 · 나흘에 그치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가 대표적인 단거리 여행지로 특수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으나, 연휴 핵심 시간대 항공권이 동나고 남은 좌석의 운임도 크게 올라 국내선 공급 감소 속에 마일리지 특별기가 투입됨.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반을 가동하며, 이 기간 항공기 약 2548편이 운항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 평균 운항 편수와 여객은 지난해 추석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제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추석 자금난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1~11일 도내 중소기업 4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 대출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난 속에서도 기업의 69%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임. ·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임금 체불은 매달 평균 20억원꼴로 발생했으며, 전체 체불액의 75%는 뒤늦게라도 지급돼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2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고통이 길어짐.
	관광객 (외국인)	- 누적 관광객 1000만명 돌파...작년보다 8일 빨라 ·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999만 1610명으로 18일 오전 연간 누적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돌파 시점인 9월 26일보다 8일 빠르고 2024년의 9월 17일보다는 하루 늦은 기록임. · 18일 기준 누적 관광객은 100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최근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연간 1000만명 돌파 시점은 지난해보다 앞당겨짐. - 직항 없는 동남아 관광객 50% 이상 급증 · 8월 말 기준 제주 방문 베트남 관광객은 5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1만3476명으로 54.2% 늘었으며,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김포·부산 등 국내 공항을 거쳐 제주로 오도록 유도한 연계 마케팅의 성과로 분석됨. · 제주도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와 한국관광공사 협력으로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해 국내선 연계 프로모션 코드 사용률이 97%에 달했으며, 베트남 기업 10곳과 2027년까지 4000명 방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 기업 마케팅도 병행함. - 10월 가을 성수기 시장별 관광 마케팅 집중 · 제주도는 가을 관광 성수기인 10월을 맞아 국내에서는 수도권 잠재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집중 전개하고 해외에서는 국가별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며,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함. · 제주도관광협회는 여름철 야간관광 콘텐츠로 운영해 온 제주시티투어 야밤버스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10월 한달 제주 전역이 전국체전부터 국제행사까지 축제·행사로 채워져 관광객 체류와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함.

	소비(소상공인)	- 추석 앞 소상공인 500곳에 150억 특별보증 · 제주도는 17일 소상공인 희망전환 특별보증 협약식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500여 곳에 150억원의 특별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보증수수료 감면과 대출이자 2.5% 보전이 적용되고 비대면 심사가 도입됨.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동·서·남·북 주요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해 원거리 소상공인에게 보증 상담과 세무·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을 운영했고, 제주도는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가을 소비 확산 범도민 캠페인을 진행함. - 호우·강풍 때 관광소비 최대 17% 감소 · 한국은행 제주본부 김의정 조사역이 2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호우·강풍이 발생하면 관광소비가 관광지 유형에 따라 최대 17% 감소하고 강풍 때 감소폭이 더 컸으며, 41개 읍면동의 관광소비 영향을 분석 결과 야외 관광지는 방문객 감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전통시장과 거리상권은 강풍에 따른 도보 이동 제약으로 소비 감소가 심화된 반면 호텔·쇼핑몰·면세점은 소비가 증가했으며, 기후충격 대응력 강화와 실내 대체시설·이동성 확보 등 관광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제언됨. - 고용 늘어도 소비 회복 제자리…부동산 심리 최저 · 제주 고용률은 71.9%로 전년보다 2.1%p 상승했지만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7.7%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기준치를 밑돌았으며, 한국지역혁신연구원 분석에서도 고용의 양적 개선이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역경제 회복세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도민 카드소비와 관광소비는 늘었으나 생활비와 채무상환 부담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제약됐고,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제주는 96.4로 강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음.
경제·관광	감귤(유통)	- 노지감귤 5년 최대 44만3300t…유통계획 확정 · 제주도는 16일 2026년 노지 온주밀감 생산 및 수급 계획안을 확정했으며, 과실 비대기에 비가 적게 내려 생산 예상량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44만 3300t 내외(42만5300~46만1300t)로 예측돼 유통 처리가 가공과 군납에 달린 것으로 분석됨.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위원장 고일학 남원농협장)는 14일 총회에서 올해산 감귤 상품 품질기준과 고당도 감귤의 상품 출하 과실 크기 규격 범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도 1kg당 210원으로 결정함. - 추석 앞 상품외 감귤 유통 적발…감시 강화 · 제주도는 추석 연휴와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16~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농산물도매시장,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제주시·서귀포시 감귤 유통과, 농협경제제주 제주본부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규격 외 극조생 감귤 1.1t 유통 1건을 적발함. · 제주시는 감귤 상품 출하 시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 조례에 따라 농협·

경제·관광	감귤 (유통)	감협 생산자단체와 유통인단체, 직거래 출하자 등 185명을 2026년도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했으며, 상품외 꼬마귤인 꼬다마의 농가 유통은 2021년부터 이미 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감귤·마늘 산지유통 스마트APC 전환·AI 관측 · 제주고산농협과 제주위미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스마트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돼 제주 마늘과 감귤 주산지 산지유통 시설의 선별 단계부터 출하까지 현대화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됨. ·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8월 2차 노지감귤 관측조사에서 감귤나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열매 수와 크기를 자동 산출하는 관측자동화 기술이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11월 조사에 적용할 계획임.
	항공(마일리지)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확정 · 대한항공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부터 모든 마일리지 가 스카이패스로 일괄 적립되고 아시아나항공 잔여 마일리지는 통합 후 10년간 별도로 유지·운영됨. · 통합제도는 12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되고 보유자는 원하는 시점에 일괄 전환할 수 있음. - 제주항공, 창립 21년 만에 첫 단독 사옥 · 제주에 본사를 둔 제주항공은 2005년 창립 이후 김포국제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업무시설을 서울지사로 사용해 왔으나 2027년 상반기 서울 강서구 단독 사옥으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으며, 창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사옥을 마련하게 됨. ·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만5793㎡ 규모로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며,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지사를 단독 사옥으로 옮긴다고 설명함. - 관광업계 항공좌석난 해소 촉구…내국인 감소 비상 ·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17일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관광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2026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를 열었으며, 제53회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한 이 자리에서 항공좌석난 해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됨. · 항공기 공급 좌석 감소 여파로 할인운임이 대폭 축소돼 항공요금이 오른 데다 9월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가 4월 7700원보다 크게 오른 2만900원으로 책정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확대돼 업계에 비상이 걸림.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석(명절), 범죄(사기), 수사(허위), 장애인(대회), 학생(건강)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	추석 (명절)	- 추석 연휴 주차차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제주시는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하되, 공항 주변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과 특별관리구역은 상시 단속하고 안전 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도 정상 운영함. · 제주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영 유료주차장 118개소 6755면 가운데 115개소 6496면을 무료로 개방하며,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주차 장은 주차 회전율 제고와 혼잡 방지를 위해 유료로 운영함. - 추석 앞 취약계층 향한 나눔·온정 이어져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유병돈)는 16일 추석을 맞아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2026년 추석맞이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성금 5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고종필)는 18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 주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고,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전
-------	------------	--

지역·사회	추석 (명절)	직원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과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제주보육원에 전달함. - 추석 당일 흐림…대형마트는 서귀포만 휴무 ·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 제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거나 흐려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으며, 21일부터 한 주 내내 대체로 맑다가 주말인 26일부터 전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 서귀포시는 이마트 서귀포점·홈플러스 서귀포점과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서흥점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 쉴 수 있게 한 반면 제주시는 관련 신청이 없어 정상 영업하며, 서귀포시는 26일 새연교에서 금토금토 새연쇼를 추석 특집으로 운영함.
	범죄 (사기)	- 골드바·노쇼 피싱 조직 31명 검거…피해 108억 · 제주경찰청은 허위 중고물품 판매와 골드바 투자 사기에 노쇼 피싱까지 벌인 해외 거점 범죄조직원 31명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책 A씨(30대·여) 등 12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1341명에게서 10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됨. · 이 조직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점조직형 사기단으로 골드바 판매 사이트까지 운영했으며, 해외 자금 세탁 총책인 30대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됨. 중고거래·골드바 사기와 피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범죄조직이 일망타진됨. - 제주 범죄발생비 전국 최고…관광객 반영 땀 급감 ·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센터장 박창열)가 21일 낸 정책이슈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관광객 등 실제 체류 인구를 반영하면 3573.9건으로 769.8건 감소함. · 최근 10년간 발생비는 19.8% 줄었으며, 특정지표만을 근거로 제주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체계 점검론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특성과 중장기적 안전 개선을 함께 고려할 것이 제언됨. - 아내 살해 전직 경찰관 기소·상습 절도범 구속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강도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힘. ·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6월 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을 돌며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 8개소에 침입해 현금 17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함.
	수사 (허위)	- 실종 허위종결 사태, 전 형사과장 등 8명 수사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부서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형사과장 2명과 실종수사팀장 1명, 팀원 5명 등 8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으며, 관

지역·사회	수사 (허위)	련자 전원은 대기 발령 등 조치됨. · 지난 1일 구속 송치된 부경장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이 마련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이 시행돼 제주에서도 실종사건을 종결하려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은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함. - 변호사 알선 경위 입건·도의원 선거법 압수수색 · 제주경찰청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으며,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토대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임. ·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회의 K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6·3지방선거 이후 선관위가 선거사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조사 진술을 토대로 이뤄져 현역 도의원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됨. - 남원읍 배수로 덮개 32개 도난…해안 마약 23번째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와 한남리 도로에 있던 배수로 덮개 32개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5·16일 3회에 걸쳐 감쪽같이 사라져 서귀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며, 배수관이 도난당한 한남리에서는 남원읍이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함. · 17일 오전 8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을 광치기 해변에서 연안 정화활동 중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제주 해안가에서 차 봉지 포장 마약이 발견된 것은 5개월여 만으로 벌써 23번째임.
	장애인 (대회)	- 제주 첫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종합 9위 역대 최고 ·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6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으로 엿새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와 재미선수단 등 9141명이 31개 종목에서 도전과 감동의 기량을 겨룸. · 제주선수단은 금메달 68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 등 모두 164개의 메달을 획득해 목표 150개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인 종합 9위에 올랐고, 배드민턴이 22개 메달로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육상 계주에서 16년 만에 신기록이 나옴. - 장애인체전 안전·편의시설 부실 준비 도마 ·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당구경기장 출입구 단차를 접은 박스와 매트로 임시 보완한 곳에서 한 선수가 휠체어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안전·편의시설 준비 부실이 도마에 오름. · 경기장 화장실 입구 단차로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부터 난관을 겪고 승강기에는 휠체어 한 대만 들어가는 데다 수어통역도 전달에 한계를 보이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놓고도 정작 선수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용자 관점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주대병원 장애인 고용 4년째 법정기준 미달 ·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4년 동안

지역·사회	장애인 (대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고용률은 3.30%로 법정 기준보다 0.50%p 낮아 채용 확대와 직무 발굴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론이 제기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도지부는 15~18일 벅스코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1개, 동상 2개, 장려상 1개를 거두고 18일 제주공항에서 해단식을 가졌으며,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10월 7일 장애인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학생 (건강)	- 난치병 학생 215명에 교육·치료비 3억원 지원 ·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열고 난치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도내 학생 215명에게 총 3억원 규모의 교육경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함. · 진료비의 90%와 화상강의, 도외 치료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치료비뿐 아니라 학습 공백을 메우고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경비까지 뒷받침함으로써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함. - 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배상 촉구 ·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교육청이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함. ·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조속히 개선하라고도 요구했으며, 급식 노동자 폐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제주에서도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가 본격화됨. - 멸종위기종 방사·유학생 한복 체험 등 학생 활동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지선)은 2026년 환경지킴이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15일 예래초와 16일 신례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함께 환경지킴이 멸종위기종 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애기불 소동구리 방사 활동을 실시함. · 제주대학교는 22~23일 외국인 유학생 247명과 내국인 재학생이 함께 한복을 입고 한가위 차례상 설명을 들으며 전통 명절문화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19일 열린 제27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세화고 김유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